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렴 세상



2014. 9. 29

주간

VOL 2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5년산 양파·마늘 재배의향 속보

국내외 농축산물 가격동향

농축산물 물가동향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저비용·고효율 농업기술정보

키다리병에 강한 벼 신품종 개발

온난화 바람타고 '벼 2기작' 확산

딸기강정, 블루베리 견과칩 개발

ICT기반 시설원에 에너지 통합관리 기술개발

정책동향

2014년산 쌀 37만톤 매입 추진

한·캐나다 FTA 정식 서명

농식품 이슈 분석

농업전망을 통해 알아 본 우리 농산물 사용실태

해외 농업정보

우리 팽이·만가닥 벼싯이 칠레를 넘어 세계로

중국 곡물 재고가 늘고 있다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농업관측센터)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2~18도, 최고기온 : 23~25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강수량은 평년(0~1.1m)보다 조금 많겠음.

❁ 농작물 재배동향(농업관측센터)

- ▶ 양 파 : 2015년산 재배의향 면적은 21,567ha로 추정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9.19.), 2015년산 재배의향 면적은 2014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10%, 2% 감소
- ▶ 마 늘 : 2015년산 재배의향 면적은 24,687ha로 추정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9.19.), 2015년산 재배의향 면적은 2014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2%, 4% 감소

❁ 국내외 농축산물 가격동향(농업관측센터)

- ▶ 농축산물 물가동향
 - 농산물 : 전월대비 3.9% 상승(전년 동월대비 12.6%↓)
 - 축산물 : 전월대비 1.5% 하락(전년 동월대비 7.5%↓)
- ▶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선물가격은 전 분기 대비 17.3% 하락 전망

❁ 농업기술정보(농촌진흥청, 농업인신문 등)

- ▶ 키다리병에 강한 벼 신품종(밀양 299호) 개발
 - 3년간의 적응시험을 거쳐 2017년부터 농가에 보급 계획
- ▶ 온난화 바람 타고 '벼 2기작' 확산
 - 지난해 순천을 시작으로 고흥, 해남, 강진, 경남 고성 등 남부지방 중심 확산
- ▶ 딸기강정·블루베리 견과칩 개발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등 부가가치 향상

※ 정책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2014년산 쌀 37만톤 매입 추진
 - 2014년산 공공비축용 쌀 37만톤 연말까지 매입, 1등급 벼 40kg 기준으로 52,000원 우선 지급
 - ※ 금년부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을 위해 ‘14년산 쌀 3만톤 신규 매입
- ▶ 한·캐나다 FTA 정식 서명
 - (돼지고기) 캐나다산 돼지고기 가격은 국내산의 60~70% 수준으로 25%의 관세가 철폐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에 걸쳐 22~25%의 관세가 2027년쯤 완전히 철폐
 - (소고기) 캐나다산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현행 40%인 관세율이 매년 2.7%씩 낮아지다 2029년쯤 완전히 철폐

※ 농식품 이슈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농업전망을 통해 알아 본 우리 농산물 이용 실태
 - 식품산업의 식재료 이용 실태 : 국내산 14.9%, 수입산 58.1%
 - 국내산 농산물 이용의 문제점 : 높은 농산물 가격, 국내산 농산물 공급의 불안정성, 식품가공이 가능한 종자개발 및 연구 부족
 - 국내 농산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 : 생산비 절감, 유통비용의 축소, 안정적 농산물 공급 시스템 구축, 식품 가공용 종자개발 및 보급 확대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 2014년 9월 USDA¹⁾ 세계 곡물 수급 전망
 - 2014/15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0.9% 감소하지만 전체 공급량은 0.9% 증가 전망
 - 2014/15년도 쌀 재고량은 전년대비 1.3%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곡물재고 늘어, 과잉공급으로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14년도 전남 녹색축산육성기금(3차) 신청 안내

- 사업기간/금리 : 2014. 9. 29. ~ 10. 15./ 연 1%(연체이율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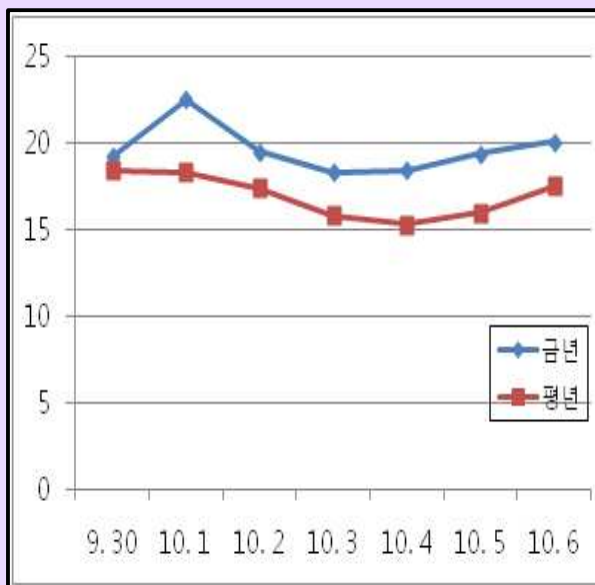
1)USDA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미국농업연구청)

1. 주간 기상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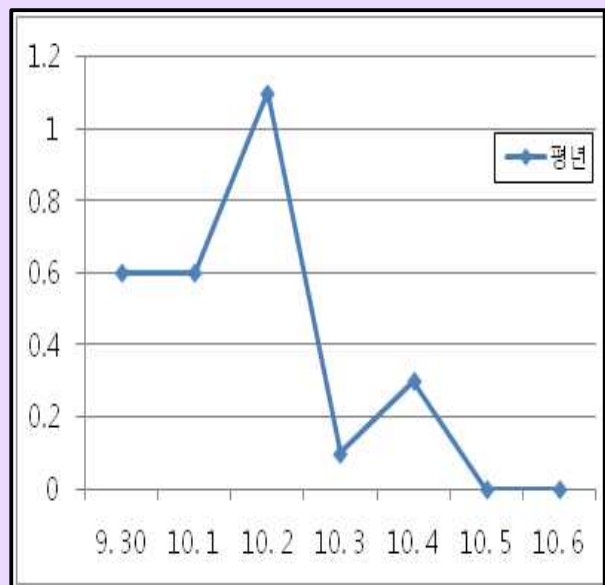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서비스/호남내륙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9.6	17.0	2.6	24.3	23.7	0.6	14.9	11.6	3.36	2.7
9. 30(화)	19.2	18.4	0.7	24.4	23.9	0.5	13.9	13.7	0.2	0.6
10. 1(수)	22.5	18.3	4.2	26.7	24.6	2.1	18.3	13.8	4.5	0.6
10. 2(목)	19.5	17.4	2.1	24.2	23.1	1.1	14.8	12.5	2.2	1.1
10. 3(금)	18.3	15.8	2.5	22.2	22.8	-0.6	14.3	10.4	3.9	0.1
10. 4(토)	18.4	15.3	3	24	23.5	0.5	12.8	9	3.8	0.3
10. 5(일)	19.4	16	3.3	24.6	23.7	0.9	14.1	9.8	4.3	0
10. 6(월)	20.1	17.5	2.6	23.9	24.3	-0.3	16.2	11.8	4.4	0

* 기온은 평균이고, 강수량은 합계이며, 평년은 2009-2013년까지 5년간 평균 값임



<평균 기온(℃)>



<강수량(mm)>

2. 농작물 재배동향

2015년산 양파·마늘 재배의향 속보

■ 2015년산 양파 재배의향 전년, 평년보다 각각 10%, 2% 감소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결과(9. 19), 2015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2014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10%, 2% 감소
 -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2014년산보다 소폭 감소, 중만생종은 11% 감소, 평년 대비는 조생종이 14% 감소, 중만생종은 비슷
 - 2014년산 양파 가격 하락으로 재배의향면적 감소, 파종기에 근접하여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들이 많아 8월 말 조사치(2014년산 대비 -6%)보다 감소폭 확대
 - 종자업체 조사결과(9월 22일), 양파 종자 판매량은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

<2015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2014년산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전체	전남	충청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조생종	-1.4	-4.1	-	-1.1	-	-	2.7
중만생종	-11.0	-10.0	-0.2	-14.8	-10.7	-14.2	-11.3
전체	-9.8	-9.1	-0.2	-13.3	-10.7	-14.2	0.8

○ 2015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만 1,567ha로 추정

- 2014년산 재배면적은 2013년산 대비 3,875ha 증가, 2015년산 재배면적은 2014년산 대비 약 2,300ha 감소

<2015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단위 : ha)

2015년	2014년	평년	증 감 률(%)	
			2014년 대비	평년 대비
21,567	23,911	22,018	-9.8	-2.0

■ 2015년산 마늘 재배의향 전년, 평년보다 각각 2%, 4% 감소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9. 19), 한지형과 난지형 마늘 재배의향이 각각 2%, 1% 감소하여 2015년산 마늘 전체 재배의향 면적은 2014년산보다 2% 감소 전망
 - 지역별로 난지형 남도종 주산지인 호남과 제주의 재배의향 감소, 대서종 재배의향 증가로 영남은 증가 전망
- 2015년산 한지형·남도종 마늘 재배 감소, 대서종은 증가 전망
 - 난지형 마늘 가운데 남도종은 농가수취가격 하락과 생산비 부담으로 재배의향이 감소, 출하기 산지가격 상승으로 대서종 재배는 증가 전망

<2015년산 마늘 재배면적 2014년산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 분	전체	호남	충청	영남	제주
한 지	-2.2	-	-6.0	0.1	-
난 지	-1.3	-3.9	11.5	4.8	-12.2
전 체	-1.5	-3.9	-1.2	3.7	-12.2

- 농업관측센터 재배의향에 의한 2015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 평년보다 4% 감소한 24,687ha 추정

<2015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구 분	한지형(ha)	난지형(ha)	전체(ha)
2015	5,168	19,519	24,687
2014	5,282	19,780	25,062
평년	5,668	20,089	25,757
증감률	금년대비	-1.3	-1.5
(%)	평년대비	-8.8	-4.2

3. 국내외 농축산물 가격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109.79, 전월대비 1.5%p 상승

※ 전년 동월대비 4.8%p ↓

- (농산물) 105.83, 전월대비 3.9%p 상승(전년 동월대비 12.6% ↓)
- (축산물) 113.18, 전월대비 1.5%p 하락(전년 동월대비 7.5% ↑)
- (수산물) 114.16, 전월대비 0.1%p 하락(전년 동월대비 1.4% ↑)

<2014년 8월 품목별 동향(2010=100, %)>

단위: 2010=100, %, %p

구 분	품목수	가중치	지수	등락률		기여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총 지 수	481	1000.0	109.45	0.2	1.4	0.18	1.41
농축수산물	71	77.6	109.79	1.5	-4.8	0.11	-0.37
농 산 물	51	44.1	105.83	3.9	-12.6	0.15	-0.56
축 산 물	6	22.2	113.18	-1.5	7.5	-0.04	0.17
수 산 물	14	11.3	114.16	-0.1	1.4	0.00	0.02

<2014년 8월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상승품목	시금치(73.6), 양상추(62.2), 상추(50.4), 오이(43.5), 호박(42.5), 배추(32.9), 브로콜리(26.0)	쇠고기(수입: 11.0), 돼지고기(10.0), 쇠고기(국산: 8.1), 달걀(7.4), 바나나(7.4)
하락품목	복숭아(-22.4), 포도(-5.4), 돼지고기(-5.2), 고등어(-4.6)	수박(-38.2), 토마토(-38.1), 배추(-33.0), 양파(-32.7), 포도(-26.8)

■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선물가격 전 분기 대비 17.3% 하락전망

-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우호적 거시경제요인, 작년보다 양호한 옥수수과 콩의 생육상황 및 북반구 옥수수 수확시기 도래 등의 요인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17.3% 하락한 226.6으로 예상
 - 달러화강세, 유가 전망치 하향조정 등 국제곡물 선물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요인들이 존재
 - 북반구 옥수수의 수확시기(9월 이후)가 도래, 북반구 옥수수는 전년 대비 양호한 생육상황을 보이고 있어 많은 생산량이 예상
 - 미국과 일본의 기상청은 하반기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호주 기상청은 엘니뇨 강도가 세지 않을 것으로 예측. 이는 남미, 동남아시아, 호주의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피해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의미
-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전 분기 대비 4.1%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콩 선물시장은 우호적 생산량 전망으로 근월물 가격보다 원월물 가격이 낮은 상황
 - 4/4분기에 진행되는 북반구 콩, 남반구 밀의 수확은 선물가격 하락요인
- 반면 흑해지역과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상이변(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국제곡물 선물가격 상승요인도 존재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4. 9. 29. 기준/단위 : 원)

부 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09/29)	1주일전 (09/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42,400	42,400	42,600	44,350	39,133	↓4.4	↑8.3
	고구마(밤)	10kg	23,400	23,000	26,840	23,450	25,897	↓0.2	↓9.6
	감자(수미)	20kg	22,000	23,200	23,600	24,700	27,327	↓10.9	↓19.5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690	760	789	875	976	↓21.1	↓29.3
	양배추	10kg	4,420	4,620	4,520	7,600	8,600	↓41.8	↓48.6
	오이(취청)	10kg	10,333	10,000	26,467	17,167	21,486	↓39.8	↓51.9
	애호박	8kg	9,200	11,200	23,920	14,550	19,637	↓36.8	↓53.1
	토마토	10kg	33,800	26,800	17,000	28,400	36,387	↑19.0	↓7.1
	무(고랭지)	1kg	600	570	530	690	728	↓13.0	↓17.6
	당근	20kg	55,200	57,600	54,680	39,850	43,100	↑38.5	↑28.1
	건고추(화건)	60kg	894,000	874,000	785,600	690,000	819,867	↑29.6	↑9.0
	풋고추	10kg	38,000	45,600	62,320	24,300	38,117	↑56.4	↓0.3
	마늘(난지)	10kg	33,400	33,400	33,400	26,200	33,740	↑27.5	↓1.0
	양파	1kg	530	526	521	948	884	↓44.1	↓40.0
	대파	1kg	1,180	1,160	1,428	1,948	2,184	↓39.4	↓46.0
	파프리카	5kg	31,200	30,000	28,280	27,850	32,393	↑12.0	↓3.7
	방울토마토	5kg	13,800	10,800	10,320	15,800	20,613	↓12.7	↓33.1
특용작물	참깨(백색)	30kg	524,000	520,000	530,000	568,500	542,833	↓7.8	↓3.5
	들깨	45kg	436,000	438,000	438,000	491,500	306,733	↓11.3	↑42.1
	새송이버섯	2kg	7,800	8,000	8,560	8,650	-	↓9.8	0.0

부류	품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율(%)	
		판매단위	당일 (09/29)	1주일전 (09/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대비	평년대비
과일류	사과(홍로)	15kg	45,000	50,400	71,000	55,000	50,217	↓18.2	↓10.4
	배(신고)	15kg	28,000	33,000	58,640	43,800	39,000	↓36.1	↓28.2
	포도	5kg	14,800	14,600	16,560	15,950	17,060	↓7.2	↓13.2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616	6,805	6,757	6,555	7,387	↑0.9	↓10.4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86	1,954	2,089	1,766	1,719	↑18.1	↑21.3
	닭고기	1kg	5,404	5,019	5,105	5,936	5,164	↓9.0	↑4.6
	계란(특란)	10개	1,934	1,970	1,988	1,864	1,844	↑3.8	↑4.9
	우유	1리터	2,547	2,547	2,549	2,522	2,218	↑1.0	↑14.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4. 9. 26. 기준)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락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소 (600Kg)	암	4,641 천원	4,440 천원	3,529 천원	↑4.5	↑31.5
	거세	5,478 "	5,478 "	5,498 "	0.0	↓0.4
송아지 (6~7월)	암	1,962 "	1,811 "	1,170 "	↑8.3	↑67.7
	수	2,715 "	2,741 "	2,061 "	↓0.9	↑31.7
육우(600Kg)		3,109 "	3,065 "	2,704 "	↑1.4	↑15.0
젖소수송아지(7일령)		17 "	17 "	20 "	0.0	↓15.0
돼지(110kg)		368 "	421 "	320 "	↓12.6	↑15.0
육계(원/kg)		1,209 원	1,259 원	1,679 원	↓4.0	↓28.0
계란(원/특란10개)		1,357 원	1,438 원	1,472 원	↓5.6	↓7.8
오리(원/kg)		2,166 원	2,166 원	2,266 원	0.0	↓4.4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키다리병에 강한 벼 신품종 개발

‘밀양 299호’와 ‘일품벼’ 주요 특성 비교

계통명	이삭매는 시기	벼 키(cm)	이삭 길이(cm)	이삭 수(개)	수당립수(개)	쓰러짐	여물비율(%)	수량(kg/10 a)	수량지수
<밀양 299호>	8월17일	80.9	22.8	12.7	125	강	83.8	554	103
<일품벼>	8월16일	78.4	22.7	13.8	111	강	86.1	539	100

키다리병에 강한 신품종 벼가 개발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키다리병 내병성 신품종 벼 <밀양 299호>를 육성했다고 밝혔다.

키다리병은 지난해 전국 31%의 논에서 발생해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최근엔 병 발생을 막기 위해 약제를 사용해도 잘 듣지 않는 병원균 약제 저항성이 나타나 피해가 커지면서 내병성 신품종 벼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농진청이 이번에 육성한 <밀양 299호>는 ‘벼 키다리병 대량 검정법’을 이용, 병에 강한 통일형 <신광벼>를 선발한 뒤 그 저항성 유전자를 밥맛이 좋은 <일품벼>에 옮겨 키다리병에 강한 특성을 갖도록 만든 품종이다.

농진청 시험재배 결과 일반 품종은 키다리병이 발생하면 90% 이상이 고사하지만 <밀양 299호>는 80% 이상이 정상적으로 자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쌀 품질과 수량성도 <일품벼>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현재 <밀양 299호> 품종등록을 위해 지역 적응성 시험을 진행 중이며, 3년간의 적응시험을 거쳐 2017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가공용 녹색 팥 새 품종 ‘연두채’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공용 녹색 팥 새 품종 ‘연두채’를 개발했다.

현재 팥 자급률은 13% 정도로 낮은 편이며, 이에 국산 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색과 용도별로 팥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연두채’의 껍질은 녹색이며 소립종(잔씨앗)으로 발아율이 높고 부패율이 낮아 싹나물을 만들기에 알맞다. ‘연두채’를 5일~7일 정도 나물로 키우면 길이가 7cm~10cm 정도 되는데, 연구 결과 항산화 활성도를 나타내는 ABTS 라디칼 소거활성¹⁾ 능력이 숙주나물보다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두채’는 쓰러짐에 강하고 개화기도 빠르지만 성숙 기간이 길어 팥알이 알차고 많다. 수량은 10a당 212kg으로 다수성이다. 강원도 산간 고랭지를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다.

‘연두채’는 종자증식 과정을 거쳐 2015년 말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보급종을 공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고산도 과일식초 제조 기술 개발

자연 발효로 몸에 좋은 고산도 과일 식초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식초를 만드는 우수 종균인 초산균을 이용한 종초(씨앗식초) 제조 조건을 확립해 품질이 우수한 과일식초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립한 종초 제조조건은 ‘Acetobacter pasteurianus CV3’란 초산균을 액체배지 100ml에 접종한 후 30℃에서 2주~3주 간 배양하는 것으로, 이때 적정 산도는 3.5% 내외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만든 종초로 식초를 만들면 높은 산도의 천연발효식초를 얻을 수 있으며, 이번에 개발한 과일식초는 사과, 배, 포도 3가지로 산도가 8% 이상이다.

과일식초는 새콤달콤한 맛에 과일향이 풍부하며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용이나 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자연 발효시키기 때문에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 유기산, 무기질 등 건강에 유익한 영양 성분이 풍부해 소화가 잘 되고 피로회복과 간 기능 강화, 혈압 안정 등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고산도 과일식초 제조 기술 개발로 그동안 산도(4% 이하)가 낮고 맛과 향이 좋지 않고 수율이 떨어지는 전통발효식초의 단점 해결은 물론, 남은 과일을 활용함으로써 과일 소비 촉진과 장기 저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농업인신문

■ 온난화 바람 타고 ‘벼 2期作’ 확산

벼를 같은 땅에서 1년에 두 번 재배하는 ‘벼 2기작(二期作)’시험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 확산되는 2기작 = [전남] 지난해에는 순천시 농업기술센터(1만㎡)에서만 벼 2기작이 시도됐으나 올해는 순천(2만㎡)은 물론 고흥(1만3000㎡)과 해남(9000㎡), 강진(2000㎡)으로 확산됐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고성군 거류면 허태호(43) 씨가 3000㎡에 벼 2기작을 시도한 데 이어 올해는 창녕, 창원 등 20농가가 6만㎡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

◆ 2기작 관심 왜 =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 지난해 가장 먼저 시험재배에 나선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는 쌀이 남아돌지만 먼 훗날 식량문제가 발생해 쌀값이 폭등할 경우에는 벼 2기작이 필요할 수 있다”며 “위기가 오기 전에 모내기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 어떤 품종이 2기작에 맞는지 등을 연구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소득 증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처음 심은 벼를 8월 중·하순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제수용 햅쌀로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경제성 논란은 여전 = 일부 전문가들은 벼 2기작보다는 2모작의 경제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벼육종재배과장이점호 농학박사는 “벼 2기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기후에서 경제성과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처럼 한여름 기온이 낮고 일조량이 저조할 때는 더욱 권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 수확했다고 해서 두 배로 소출이 나오지 않는데다, 품질이 단작으로 생산한 벼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문화일보

■ 딸기강정·블루베리 견과칩 아시나요

담양군이 지역 대표농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개발하고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생활개선회 회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딸기와 블루베리를 재료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음식문화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교육은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식메뉴를 발굴하고, 지역의 음식 문화와 맛을 익혀 식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남 도립대학교 한국음식과 박연진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담양 전통 음식 문화 이해에 대한 이론교육에 이어 지역 대표 농산물인 딸기와 블루베리를 활용한 딸기강정, 블루베리견과칩<사진>만들기 실습이 실시됐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강정이라는 전통음식과 딸기 분말 및 동결건조칩, 블루베리견과 등을 접목한 음식을 만들고, ‘피부가 예뻐지는 딸기강정’, ‘성적이 올라가는 블루베리견과강정’이라는 스토리텔링까지 더하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군농기센터 관계자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음식 개발은 농가소득 등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에게 아이টে를 제공해 창업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의식전환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주매일신문

■ ICT기반 시설원에 에너지 통합관리 기술개발

▶ 천연가스 활용해 난방비 절감...시설원에 경쟁력 강화 박차

○ ICT(정보통신기술)기반 시설원에 에너지 통합관리 기술개발은 시설원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농업을 선진화하고 농업분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분산형 시스템을 이용해 농촌의 에너지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 [국내 시설원예면적 5만2000ha] 국내 시설원예 현황과 농촌 에너지 문제=국내 시설원예 현황은 1990년대부터 급격히 면적이 증가하여 현재 5만2000ha에 달한다. 농가당 시설원예 면적 1위를 기록할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대부분 단동형 비닐하우스로 규모가 영세하다. 자연재해나 이상한파 등 외부 조건변화에도 취약한 한계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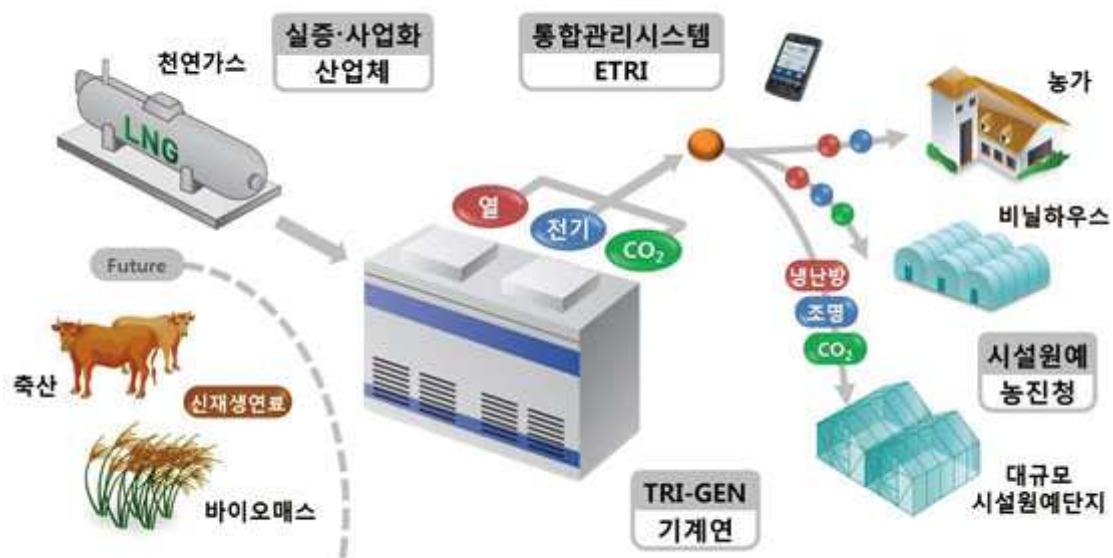
농업분야 에너지의 이슈는 유가상승으로 난방비가 급증하는데 있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셰일가스의 개발로 가스비가 안정화되고 있는데 유가 대비 상승폭이 낮고 가스연료를 사용하면 운영비도 30~40% 절감되기 때문이다.

○ [천연가스 사용 난방비 절감] 시설원예 삼중발전(TRI-GEN) 시스템=이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의 하나인 'ICT기반 시설원예 에너지 통합관리 기술개발'의 핵심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제안한 ICT기반 시설원예 통합관리(열/전기/이산화탄소-CO2)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와 고수익 모델을 제시하는데 맞춰진다.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원예시험장 박경섭 박사는 “시설원예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라며 “최근 석유에 비해 LPG(액화

석유가스)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천연가스의 경제성이 좋아지고 있어 ‘ICT기반 시설원에 에너지 통합관리 기술’이 개발돼 농가에 적용되면 난방비 부담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삼중발전시스템 구축 추진



기술개발 목표와 추진전략=기술개발의 최종 목표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시설원에 필요한 에너지(열/CO₂/전기·냉방)를 공급할 수 있는 ‘삼중발전(Tri-Gen)’ 시스템이고, 다음은 이를 제어·관리할 수 있는 ICT기반의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이다.

○ [과급효과] 이번 기술개발을 통한 과급효과는 농가 소득증대, 농업선진화 및 신산업 창출, 이산화탄소(CO₂) 저감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농가 소득증대의 경우 난방비와 CO₂ 시비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확량 증대로 연간 7000만원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국내 시설원예 면적이 5만2000ha로 1인당 온실 면적이 세계 1위인 점을 감안할 때 과급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5. 정책 동향

◆ 2014년산 쌀 37만톤 매입 추진

- 2014년산 공공비축용 쌀 37만톤을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
 - 산물벼 8만톤(9.23~11.14), 포대벼 29만톤(10.21~12.31)
- 공공비축 쌀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감안하여 1월중 확정되며, 1등급 벼 40kg 기준으로 52,000원을 우선 지급
- 올해 우선지급금은 8월 평균 산지쌀값(167,157원)을 40kg 벼로 환산한 가격 57,677원의 약 90%수준에서 결정

〈공공비축미 등급별 우선지급금〉

(단위 : 원/조곡, 4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포대벼	53,710	52,000	49,690	44,230
산물벼	52,861	51,151	48,841	43,381

* 산물벼 가격은 포대벼 가격에서 포장비용(849원) 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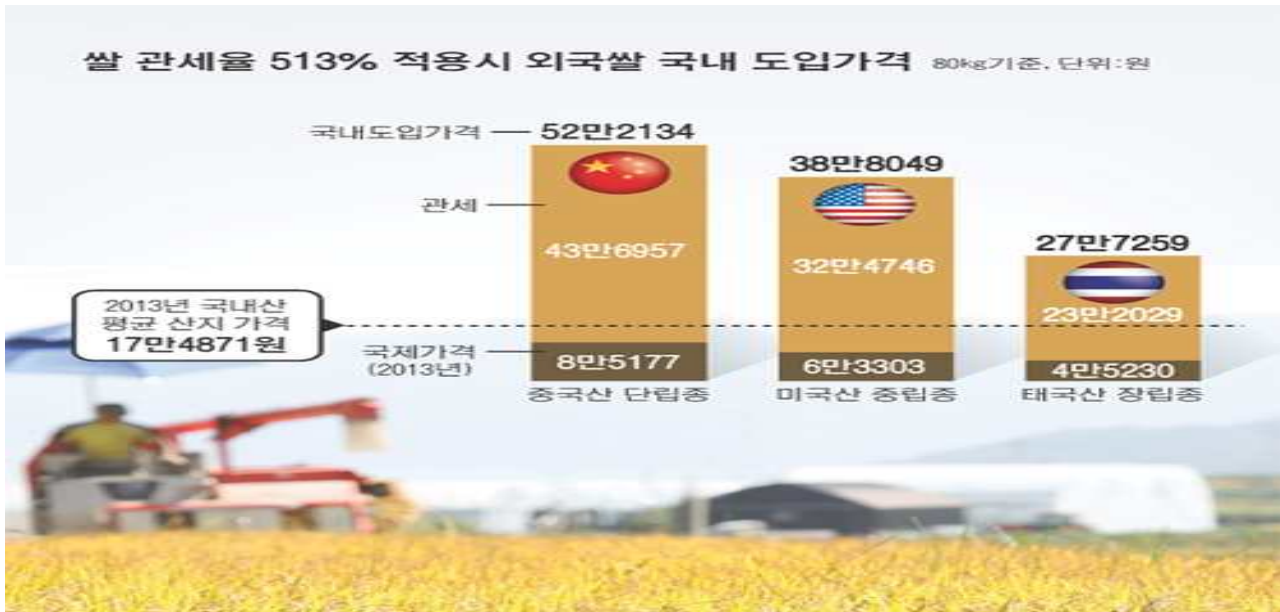
- ※ 금년부터 공공비축과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APTERR)” 운영을 위해 ‘14년산 쌀 3만톤(벼 40kg 기준, 1백4만2천 포대)을 신규 매입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캐나다 FTA 정식 서명

- 5년이나 중단됐던 한·캐나다 FTA 협상이 재개 4개월 만에 전격 타결
- 양돈산업 피해 클 듯=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돼지고기
 - 캐나다는 곡물이 풍부해 사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듦.
 - 2011년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4.1%로 미국에 이은 2위권
- 쇠고기·보리 수입 늘 듯=쇠고기도 캐나다의 주력 수출농산물
- 캐나다산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현행 40%인 관세가 매년 2.7%씩 낮아지다 2029년쯤 완전히 철폐

◆ 중국 수입가격 활용...강한 관세장벽 쳤다



- 정부는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더라도 의무수입쌀 외에 추가로 수입될 외국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국제시장에서 수입쌀이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높아도 513%란 관세장벽을 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임.

◆ 내년 농식품부 예산 어떻게 짜여졌나

쌀 관세화 및 FTA 대비 주요 증액 및 신규추진 필요 사업 단위:원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안)	증액 필요 이유
발농업직불제	906억	603억	논 이모작 단가인상 (1ha당 40만원→50만원)
농지규모화	886억	754억	단가 인상 (3.3m당 3만원→5만원)
농업자금이자보전	1346억	1161억	쌀대책 및 영연방 FTA 대비
농가사료직거래	5000억	3500억	농가 사료구매부담 완화
송아지 생산기반 우수조합 지원(신규)	-	미반영	변식기반 유지와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구축
발기반정비(신규)	-	.	한·중 FTA 대비 발작물 생산성 향상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신규)	-	.	한·중 FTA 대비 발작물 경쟁력 강화

- 내년도 예산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의 미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됨.

* 출처 : 농민신문

6. 농식품 이슈 분석

◆ “나는 대한민국 농산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농산물입니다”

농업전망을 통해 알아본 우리농산물 사용실태

대한민국 최대 농업 학술 행사인 '농업전망 대회' 올해도 변함 없이 농업전망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2014년 농업전망 중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이용실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의 식재료 이용 실태는?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비중〉



단위: %

구분	국내산	수입산	계
원물	28.3	71.7	100.0
가공원료	83.6	16.4	100.0
계	41.9	58.1	100.0

주: 5인 이상 3,500개의 식품제조업체 면접조사 결과임.
자료: aT(2012), 2011 식품원료 소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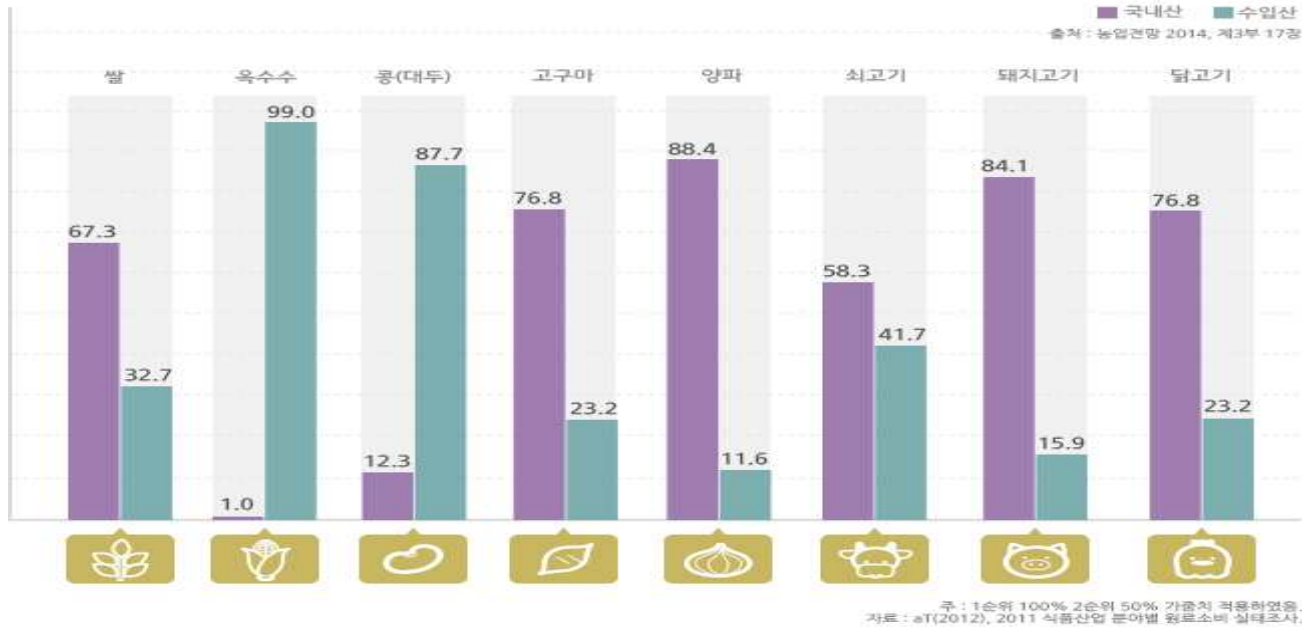
출처: 농업전망 2014, 제3부 17장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비중은 41.9%로 수입산 58.1%보다 낮은 걸 알 수 있다.

가공원료의 경우 국내산(83.6%) 보다 수입산(16.4%)이 적었으며 원물의 경우 국내산(28.3%) 보다 수입산(71.7%)이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비중은?

<식품제조업체의 품목별 국내산 농산물 이용 비중>



품목별로 양파와 돼지고기의 국내산 이용 비중은 각각 88.4%, 84.1%로 높았으며, 고구마, 닭고기도 국내산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농산물 이용률이 원료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량수급과 가격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쌀의 경우 국내 물량은 충분하나, 가격 조건은 수입산이 유리하고 국내산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높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이유는?



식품제조업체의 주원료 구입처로는 ‘산지조달’과 ‘중간도매/벤더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감자와 메밀, 참깨, 들깨는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센터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쇠고기 등 축산물은 원재료제조업체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제조업체의 주원료는 어디서 구입하나요?

〈식품 제조업체의 주원료 구입처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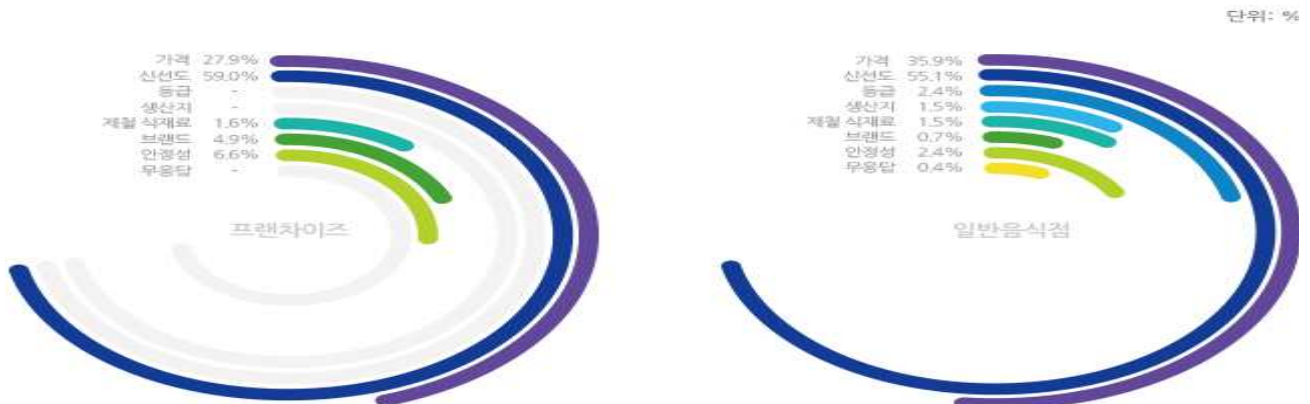
주원료	산지조달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센터	전통(소매) 시장	중간도매 벤더업체	원재료 제조업체	원정업체
쌀	41.8	6.6	16.6	1.1	26.0	6.9	1.1
보리	38.7	8.6	20.8	0.0	29.0	2.9	0.0
옥수수	44.6	15.8	12.5	0.0	25.0	0.0	2.1
소맥(밀)	45.0	5.0	15.0	0.0	20.0	15.0	0.0
메밀	25.0	25.0	16.7	0.0	25.0	8.3	0.0
대두	47.5	6.2	16.0	3.0	22.9	3.2	1.2
팥	30.0	9.2	14.9	13.5	24.3	5.4	2.7
땅콩	12.8	10.1	6.7	0.0	57.0	13.4	0.0
감자	12.2	24.3	19.4	6.7	32.8	4.5	0.0
고구마	43.6	6.0	8.4	0.0	38.6	3.4	0.0
양파	25.2	14.1	14.3	8.8	21.4	8.5	7.7
참깨	22.4	7.8	26.8	3.1	39.8	0.0	0.0
들깨	31.3	3.2	37.0	0.0	28.5	0.0	0.0
포도	39.3	14.3	14.3	3.6	28.6	0.0	0.0
쇠고기	27.7	12.3	7.8	3.1	33.2	13.4	2.4
돼지고기	22.4	9.2	7.4	2.6	39.8	16.4	2.2
닭고기	18.6	8.3	5.7	2.6	38.4	23.5	2.8

단위: %

자료: aT(2010). 「2009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

외식업체들의 식재료를 구매시 고려사항

〈외식업체 운영형태별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국내산 이용율〉



자료: aT(2010). 「2009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

외식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률은?

〈외식업체 운영형태별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국내산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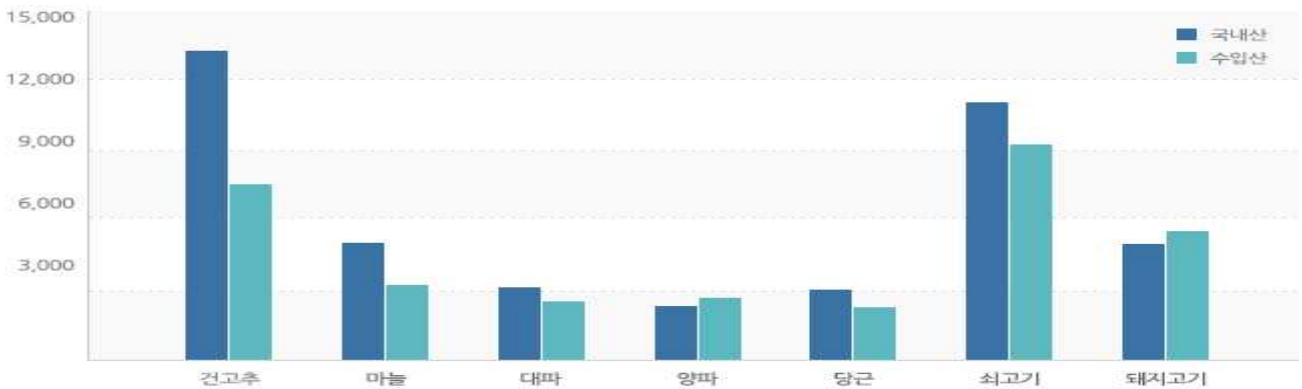
구분	쌀	채소·과일				축산			가공식품		
		당근	마늘	양파	포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춧가루	밀가루	시판용 김치
프랜차이즈	96.0	71.2	60.6	89.4	81.3	28.0	48.1	71.5	43.8	22.4	68.5
일반음식점	98.4	75.0	67.6	90.8	75.0	39.6	73.2	87.1	55.8	31.6	73.4
평균	97.8	73.6	65.4	90.4	75.6	35.9	66.6	83.0	52.3	29.5	72.0

단위: %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4/5차 연도), KREI

국내산 농산물 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 도매가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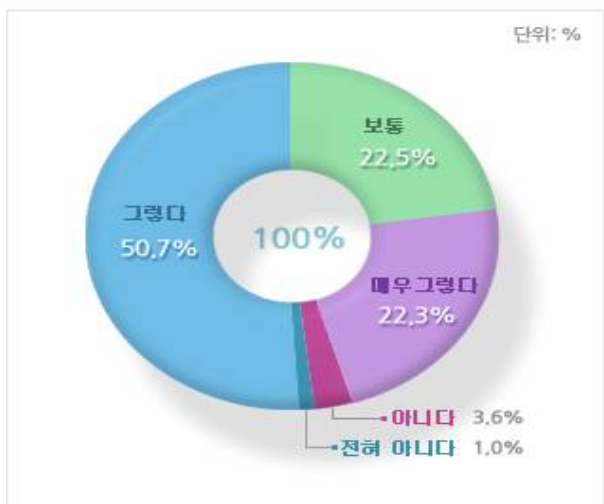
주 1) 마늘은 식품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냉동마늘 기준임.
2) 쇠고기는 한우 2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음.
3) 가격은 2012년 기준임.

자료: 농업전망 2013, KREI

첫번째 높은 국내산 농산물 가격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도매가격을 비교 했을 경우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식업체의 가격 불안정 인식 수준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73%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산 농산물 가격을 낮추고, 안정된 구입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외식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구입 가격 불안정 인식 수준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4/5차 연도), KREI

국내산 농산물 이용의 당면 문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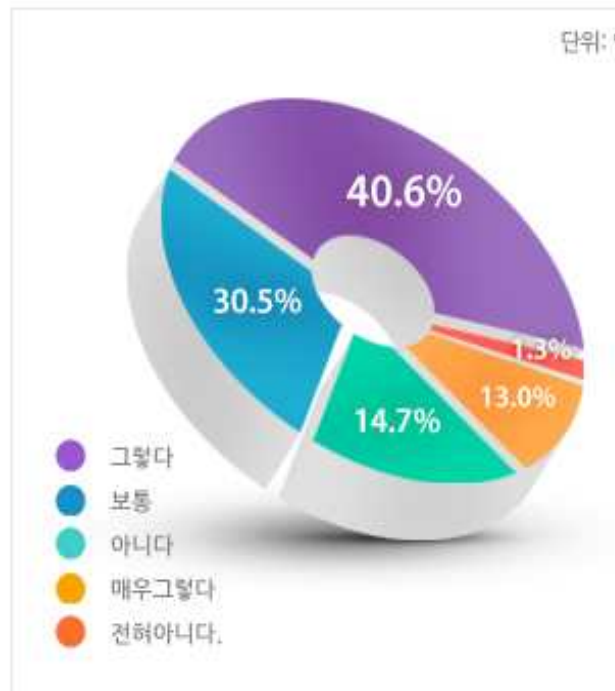
두번째 국내산 농산물 공급의 불안정성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은 산지와와의 지속적 거래를 위한 계약재배 방식이 바람직하나 계약구매의 문제는 농가 정보 미흡 및 농가의 비협조, 일시적 자금 소요에 따른 자금 부족, 계약단가 결정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산 쌀의 경우 최근 과잉생산이 되고 있어 공급량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단가가 높아 식품업체에서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육가공업체에서는 산지직구매 비율이 25%이하, 계약거래 비율은 54% 수준으로 산지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유는 돈육가공 원료육은 수직계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2~3개 원료육 공급업체가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돈육의 수급 불안 시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중 노지작물은 자연조건에 민감하여 작은 기상이변 등으로 생산량 변동이 심하여 국내산 농산물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여 외식업체는 식재료 조달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식업체의 국내 식재료 조달 어려움 정도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4/5차 연도), KREI

세번째 식품 가공이 가능한 종자 개발 및 연구 부족

양조용, 국수용, 나물용 등 특정 품종 제외하고 식품 가공이 가능한 종자 개발 보다는 식용을 위한 다수성, 품질, 기능성 등을 중심으로 품종이 개발되고 있어 가공식품의 연계 고리가 미흡하다.

또한 품종 개발 연구 기관별로 산발적, 단편적인 연구에 그쳐 식품 업체의 활용도도 미흡, 총괄적인 기능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식품가공에 맞는 연구를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식품 업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네번째 법,제도 장치의 개선 필요

식품업체와 산지와와의 직거래를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영수증 발급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영수증이 있어야 하나, 산지와 직거래 시 영수증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 업체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다.

국내농산물의 이용 활성화 정책과제의 해결방법은?

○ 생산비 절감

국내산 농산물은 높은 생산비와 농촌 고령화 등으로 수입산보다 가격이 높아 수입산 농산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재배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가공특성에 맞는 다수확 신품종 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계화 등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생산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 유통비용의 축소

〈수입산 재료 음식대비 국내산 재료 음식에 대한 지불의사〉

50~75	76~99	100	101~125	126~150	151~175	176~200	201~225	226~250	300이상
10.3	8.6	11.9	35.7	25.1	5.8	1.3	0.6	0.1	0.6

단위: %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4/5차 연도), KREI

수입산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의 가격을 100으로 가정하였을때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가격은 101~125(35.7%), 126~150(25.1%)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국내산 농산물 프리미엄은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농산물의 지불가능금액이 국내산 농산물 가격 대비 50~55% 수준이고 국내산 농산물의 프리미엄은 약 25%이어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을 약 20~25% 정도 하락시킬 경우 국내산 농산물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이버거래와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 비용을 낮춰야 할 것이다.

○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시스템 구축

계약재배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산하의 작목반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산물 구매 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자금 수요를 완화시키기 위해 농안기금 등에서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은 정부의 원료구매자금 등을 확보하여 농가에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고 농산물 판매 시에도 식품업체에 신용판매를 하여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형 식재료 유통업체의 품목(축종)별 선호 산지 유통조직〉

구분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소규모 조직	지역농협 등 대규모 조직	연합사업단/시·군유통회사	기타	계
쌀	20.7	44.8	6.9	27.6	100.0
마늘	44.4	20.0	11.1	24.5	100.0
양파	39.1	30.4	6.5	24.0	100.0
당근	39.0	22.0	12.2	26.8	100.0
오이	44.7	23.7	5.3	26.3	100.0
호박	40.5	24.3	8.1	27.1	100.0
양배추	41.0	23.1	10.3	25.6	100.0
포도	40.0	13.3	13.3	33.4	100.0
쇠고기	18.2	42.4	12.1	27.3	100.0
돼지고기	20.5	41.0	12.8	25.7	100.0
닭고기	17.1	41.5	14.6	26.8	100.0
고춧가루	30.4	30.4	13.0	26.2	100.0
서판용김치	26.3	34.2	18.4	21.1	100.0

단위: %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4/5차 연도), KRE

산지조직과 외식업체 간의 연계는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조사에서 나타나듯 쌀과 축산물 품목은 지역농협이나 농협중앙회 등과 같이 대규모 산지유통조직을 선호하며 일반 원예작물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의 소규모 산지유통조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 식재료유통업체는 지역농협 등과의 직접계약을 하며 소규모의 다수가 분포되어 있는 중소형 식자재유통업체는 몇 개의 유통업체를 묶어 일괄 납품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식품 가공용 종자 개발 및 보급 확대 필요

수요자인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연구기관과 식품업체간에 품목별 품종 보고회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공용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 기능성, 영양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국내산 농산물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식품업체의 현장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부, 연구기관, 식품업체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종자개발, 재배방법, 기능성/영양적 연구, 실용화, 판매를 위한 공동 연구 추진해야 한다.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고 식품업체의 수요, 연구 동향, 기능성 및 가공적성 품종 여부, 국내 생산동향, 수입의존도, 재배 방법의 수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7. 해외 농업정보

■ 우리 팥이 · 만가닥 버섯이 칠레를 넘어 세계로!!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빠르면 연내 우리나라산 신선 버섯 2종(팥이·만가닥)이 칠레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에 수출이 타결된 팥이버섯과 만가닥버섯은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효자 품목들로서 지난 4월 칠레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6개월 만에 수출 타결이라는 큰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다.
- 이는 지난 3월 한국산 버섯 15종의 칠레 수출이 허용될 때 제외된 2종에 대하여, 검역본부가 칠레측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검역요건 타결을 이끌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 국산 신선 버섯(재식용·식용)의 칠레 수출검역요건 »

- 대상품목: **팥이(추가), 만가닥(추가)**, 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송이 등 신선버섯 17종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하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첨부
- 지정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도 수출 가능
- 재배매체로 곡물류를 사용 할 경우에는 고열 소독처리

- 수출을 희망하는 버섯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 사무소에 검사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칠레로 수출이 가능하다.
- 버섯은 한천배지, 감자한천배지, 멸균수 또는 지정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도 수출 가능하며, 지정된 재배매체로는 톱밥, 옥수수전분, 고열소독 처리된 호밀 등의 곡물이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중국 곡물 재고가 늘고 있다!

-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중국은 11년째 곡물 작물의 풍년 기로에 서있다. 하지만 곡물 생산량에 비해 보관 창고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딜레마로 빠트릴 위협을 갖고 있다.
- 정부 매체로부터의 전망은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작물들인 쌀, 밀 그리고 옥수수를 포함한 1.5억 톤의 곡물을 정부가 보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것은 작년의 7,500만 톤의 두 배이며, 이러한 농산품들의 과잉 공급이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중국 관리들은 항상 풍년을 갖는 것을 이야기 한다.”고 미 농무부의 경제학자인 Fred Gale이 말했다. “그들이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좋은 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곡물 대부분의 잉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 가장 최근으로는 불과 몇 십 년 전까지 극심한 식량 부족과 기아와 싸우던 국가의 곡물 과잉 공급은 극찬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의 국민들을 먹이기 위해 필요 이상을 지불하고 있고, 이들은 이미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시장으로 이들의 잉여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강요되어 잠정적으로 가격을 더욱 끌어 내릴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은 농부들의 수입을 높이도록 목표된 중국의 비효율적이고 비싼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노출시켰다. 이 정부는 어떻게 이들의 농촌 주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돈을 절약하고 잉여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부패성 상품들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출처 : 관측센터

■ 2014년 9월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

□ 2014/15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0.9% 감소하지만 전체 공급량은 0.9% 증가 전망

- 미국 농업부(USDA)는 2014/15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4억 4,100만 톤으로 전년대비 0.9%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소맥의 생산량이 1.7%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량은 24억 3,195만 톤으로 전년대비 0.7% 늘어나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을 91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9억 8,110만 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1.7% 늘어난 9억 6,75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1,360만 톤 정도 상회하여 기말재고량도 전년대비 8.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재고율도 전년대비 1.1%p 상승해 18.9%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2014/15년도 쌀 재고량은 전년대비 1.3%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쌀은 전년대비 생산량이 0.7%, 소비량이 1.4% 늘어나지만 소비량과 생산량이 거의 균형을 이룰 전망이다. 재고량이 전년대비 1.3%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0.6%p 낮아져 23.0%가 될 전망이다.

□ 2014/15년도 대두 생산량이 3억 톤에 이르고 기말재고량도 23.4% 증가 전망

-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5.7% 늘어난 3억 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3.9% 늘어난 2억 8,06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역량도 전년대비 1.2% 늘어나 1억 1,23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1,940만 톤 정도 초과하여 재고량은 전년대비 23.4% 증가, 기말재고율은 29.5가 될 전망이다.

* 출처 : 관측센터

8. 사업신청 안내

◆ 2014년도 전남 녹색축산육성기금(3차) 신청 안내

- 사업기간 : 2014. 9. 29. ~ 10. 15.
- 지원규모 : 112억원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1%(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 축사시설 개보수·이전 등 동물복지형 환경개선사업원
 - 가공·유통·판매와 관련된 사업중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 친환경축산에 필요한 정책지원사업
- 융자 지원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친환경녹색축산농장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받은(심사 진행 중 포함) 가축 사육자
 - 해썹(HACCP) 지정을 받은 가축 사육자
 - 국내산 축산물 도·소매 및 가공·수출업체
 - 친환경축산물을 취급하는 가맹점 입점자 또는 판매장 개설자



생명의[♡]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2

Fax. 061-286-4782

